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강 지 연

2023년 8월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도교수 양 덕 순
지도교수 황 은 진

강 지 연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강지연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민 경 호 
위 원 양 덕 순 
위 원 황 은 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3년 8월

Analysis of the Impact of Jeju 4·3 Education on
Peace and Human Rights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i Yeo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s Duk Soon Yang, Eun Jin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23. 8.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II.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6
1. 제주4·3에 대한 고찰	6
2. 제주4·3교육 현황 분석	10
3. 평화·인권, 교육의 이론적 논의	24
1) 평화·인권 교육	24
2) 교육의 구성주의	29
4. 선행 연구 검토	31
III.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34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4
2. 조사설계	35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5
2) 설문지 구성	35
3) 자료 분석 방법	36
IV. 분석 결과	38

1. 기술통계분석	38
2.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38
3. 상관관계 분석	43
4. 가설 검증 분석	45
V. 결론	54
1. 연구 결과 요약	54
2. 정책적 제언	55
3. 연구의 공헌 및 한계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1
<부록>	63

▶ 표 목 차

[표 1] 제주4·3사건 일지	6
[표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8
[표 3] 제7차 교육과정과 ‘한국 근·현대사’ 교육내용 전개의 준거안	14
[표 4]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16~2017)	17
[표 5]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18)	18
[표 6]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19)	18
[표 7]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20)	19
[표 8]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21)	20
[표 9]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22)	21
[표 10] 제주4·3평화재단 4·3평화·인권교육 사업 운영 현황	23
[표 11] 선행 연구 검토	33
[표 12] 설문지 구성	36

[표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표 14] 제주4·3에 대한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	39
[표 15] 제주4·3 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40
[표 16] 지금까지 받았던 제주4·3 교육의 방법	41
[표 17] 제주4·3 교육에 대한 필요성	42
[표 18] 평화·인권 인식도	43
[표 19] 제주4·3요인, 제주4·3교육요인과 평화·인권 인식도의 상관관계	44
[표 20]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 관심도가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45
[표 21]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가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46
[표 22]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필요성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48
[표 23]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49
[표 24] 제주4·3요인 및 제주4·3교육요인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51
[표 25] 제주4·3요인 및 제주4·3교육요인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53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4
-------------------	----

국문초록

제주4·3은 해방 후 미군정 점령기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얽힌 제주4·3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도 주목해야 하며, 제주4·3에 대한 진실규명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진실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고 제한된 교과 시간 활용하여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주4·3에 대한 역사 기술과 제주4·3교육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4·3이라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오늘의 의미를 묻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4·3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제주4·3교육이 개인의 평화·인권 인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한다. 현재 제주지역의 초등 교육과정에서 제주4·3에 대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나아가 향후 제주4·3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내 12개교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배부한 설문지 620부 중 594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 인식도와 관심도가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지는 반면 제주4·3 피해유무와 교육여부는 평화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간접적인 제주4·3 피해경험이 존재하고 제주4·3에 대한 인식도와 관심도가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는 높아진다. 셋째, 제주4·3에 대한 교육 횟수가 많고, 학교에서 제주4·3교

육의 필요성과 행사 참여를 통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주4·3에 대한 인식도는 평화·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주4·3교육은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의 평화·인권 인식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행사를 통해서 제주4·3교육의 필요성, 교육 횟수 등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바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4·3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참여의 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제주4·3교육을 받는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제주4·3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4·3어린이 체험관 및 기념관 등을 설립하여 초등학생을 비롯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공간을 갖춰야 한다.

이 논문은 제주4·3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내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주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4·3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대상의 지역적 한정으로 인해 타 지역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점은 향후 제주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제주4·3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제주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어 : 제주4·3, 제주4·3교육, 평화, 인권, 초등학생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담론은 학술서적, 역사교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석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 이에 따라 각 분야 각 교과에서 민주시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여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가치를 함양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이하 ‘제주4·3’으로 약칭)은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시사하는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으로 약칭)에서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한다.²⁾ 또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속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536). 제주4·3은 해방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제주도 내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였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진실을 숨겼다. 이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하였다. 학교에서 이와 같은 소재를 수업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1) 「교육기본법」 제8543호.

2)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과거의 사실 자체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고 제한된 교과 시간의 활용하여 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교육이 역사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행동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와 역사적 사실을 활용한 교육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나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 초등학교 교육에서 실시하는 제주4·3교육이 구성주의에 입각한 수업의 방법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제주4·3에 대한 역사 기술과 제주4·3교육에 대한 진행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오늘의 의미를 묻고 인권의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9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서 제주4·3에 대한 교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저학년들에 대한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제주4·3이 일어나기까지 엮인 역사적인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해방 후 미군정 점령기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4·3이기 때문이다.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이 실타래처럼 엮인 제주4·3을 교육과정에 다루기란 쉽지 않다. 제주4·3에 대해 변모되고 있는 인식 또한 교육 과정에서 제주4·3을 교육하는 한계를 갖게 한다. 따라서 현재 제주4·3교육은 고등교육에 포함되어 기술되고 있다. 초, 중등학생에게 제주4·3교육은 물론 역사 과목이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제주4·3교육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 과목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교육과정이 상이한 점에 따라 정규과정에 제주4·3교육이 교육체계 속에 들어가기 어렵다. 현재 ‘지역의 역사’ 부분은 고학년의 시작인 4학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5학년부턴 이루어지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주4·3교육을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이 논문은 과연 현재 제주지역 초등학생 교육과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주4·3이 발생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제주4·3에 대한 교육이 주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진다.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이 개인의 평화·인권 인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실제 언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제주4·3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4·3에 관한 교육과정 내용 분석, 제주4·3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지역의 교육 자료 분석, 나아가 평화·인권의 가치와 인식 향상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첫째,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제주4·3이 함의하는 평화·인권 인식 또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제주4·3교육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교육 과정에 담긴 평화·인권 교육을 알아보고, 제주4·3의 서술 경향을 검토하며 제주4·3교육의 변모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에 대한 교육과 평화·인권 인식 함양의 영향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며 제주4·3의 역사와 제주4·3교육에 관한 이해의 장을 넓힐 것이다.

III은 연구모형과 조사설계이다.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을 통해 조사를 위한 도구로서 설문지 문항 사항 등 조사방법을 설계하였다. IV장은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통해 이루어진 제주4·3교육과 평화·인권 인식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제주4·3교육과 평화·인권 인식 향상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화·인권인식의 현재적 문제와 향후 해결 방안까지 모색이 가능한 참고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 V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제주4·3교육의 의의를 찾아보고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추후 제주 지역은 물론이고 제주4·3교육과 평화·인권에 대한 교육 자료의 활용, 분석, 나아가 인권의 가치를 수용한 수업 방안 제시에 있어서 의미있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제주도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 검토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 검토로는 연구 문헌, 학위논문 등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4·3교육에 관한 관련 자료와 단행본 등을 통하여 제주4·3교육과 평화·인권 교육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제주4·3교육 이수 유무, 교육경험의 경험, 제주4·3에 대한 사전 인지에 대한 변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제주4·3교육의 실태 및 문헌을 고찰하고 제주4·3 전문가와 학계의 관련 교수님들에게 검토를 거쳐 내용의 타당성을 높였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쳐 2023년 5월 중도내 초등학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4일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도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주4·3에 대한 피해유무, 교육경험 유무 및 인식도, 관심도 및 제주4·3 교육 경험에 대한 실태 및 필요성 인식, 평화·인권 인식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제주4·3교육요인, 제주4·3요인과 평화·인권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변인을 투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1. 제주4·3에 대한 고찰

제주4·3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사건으로 사건 발생 후 50여년이 지나서야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4·3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발생한 제주4·3은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반란이고,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무장대원이거나 동조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덧붙여 제주4·3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에 의해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적색화 시키기 위해서 공산도당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어 왔다(양정심, 2006).

[표1] 제주4·3사건 일지

연도별	제주4·3사건 주요 내용
1947. 3.1.	- 3·1절 경찰 발포사건
1947. 3.10.	- 경찰발포 항의 도민총파업
1948. 4·3.	- 4·3무장봉기 발발
1948. 4.5.	-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1948. 4.28.	-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 진행
1948. 5.1.	- 오라리 방화사건, 평화협상 파기
1948. 5.10.	- 단독선거 제주도 보이콧
1948. 6.10.	- 박진경 연대장 암살
1948. 6.23.	- 제주도 재선거 무산
1948. 8.2.	- 제주도 민보단 창설
1948. 8.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8.21.	- 한미군사안전 잠정협정 체결
1948. 9.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8. 10.17.	- 5km이상 통행금지 포고령 선포
1948. 11.13.	- 초토화작전 개시
1948. 11.14.	- 제주전역에 계엄령 선포
1949. 6.7.	-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1949. 6.23.	- 고등군법회의 개최
1949. 10.2.	- 제주비행장 총살 암매장
1950. 6.25.	- 6.25전쟁 발발, '전국 요시찰인 단속' 하달
1950. 7.27	- 주정공장 예비검속 수감자 수장
1950. 8.10.	- 첫알오름 집단총살
1950. 10.10.	- 제주도지구 계엄 해제
1954. 9.21.	-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사건을 도화선으로 1948년 4월 3일 4·3무장봉기의 발발, 이후 국가로 인한 무차별 학살로 제주4·3사건은 약 3만명이라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연도별 제주4·3일지에서 볼 수 있듯이 7년 7개월간 지난했던 제주4·3의 역사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과 폭력에 의해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한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언급도 진실 규명조차도 어려웠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주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단되었고, 이후 20여 년간 제주4·3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주4·3에 대해 그 무엇도 발설할 수 없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987년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다시 제주4·3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1990년대 이르러 제주4·3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19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한철호, 2018).

[표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연도별	제주4·3진상규명 주요내용
1960	5월 제주대학교 학생 7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조직 6월 6일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3명, 제주를 방문해 증언 청취
1961	5월 16일 5.16쿠데타 발발. 4·3논의 금기됨 6월15일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유족들이 세운 ‘백조일손위령비’가 경찰에 의해 부식짐
1963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가 일본에서 발간
1975	미국 하버드대학의 존 메릴 논문 「제주도 반란」 발표
1976	일본에서 김석범 대하 장편소설 「화산도」 연재
1978	현기영 소설 「순이삼촌」 발표, 제주4·3의 참혹상 폭로
1986	4월 제주대학교 4·3분향소 설치
1988	사건 발발 40주년을 맞아 일본, 서울, 제주에서 추모강연회 개최 『제주민중항쟁』, 『한라의 통곡소리』 출판
1989	4월 3일 제주지역 시민운동단체의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제주4·3추모제’ 개최, 제주신문 4·3취재반의 「4·3의 증언」 연재 시작 5월 10일 제주4·3연구소 설립(소장 현기영)
1990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발족 6월 2일 「4·3의 증언」이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연재로 이어짐
1991	4월 3일 유족들이 처음으로 제주4·3위령제 개최
1992	4월 다량쉬 굴 유해 발굴
1993	제주도의회 제주4·3특위 결성, 제주4·3사건 희생자 실태조사 착수
1994	4월 3일 시민운동단체의 제주4·3추모제와 유족들의 제주4·3위령제가 통합되어 첫 ‘합동 위령제’ 봉행
1998	제주4·3사건 발발 50주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촉구 등 각종 기념행사 개최
1999	3월 상설 운동조직체 ‘제주4·3도민연대’ 결성 10월 24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하여 ‘4·3특별법 쟁취 연대회의’ 발족 12월 16일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2000	1월 12일 ‘제주4·3특별법’ 공포 3월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4·3사건 처리지원단’, 제주도에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설치 8월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
2001	1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 발족
2003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공식10월 제주4·3사건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최종 확정 의결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 표명
2005	1월 27일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
2006	4월 3일 제58주년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 참석, 사과 재천명
	9월 22일 국회의장, 제주4·3평화공원 참배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2007	1월 22일 제주4·3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 이에 따라 수형인도 희생자로 인정되게 되었음.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
	3월 14일 제주4·3위원회, 868명(군법회의 사형 319명, 무기징역 239명, 군·경 112명 포함)을 희생자로 결정. 총 13,564명을 4·3희생자로 결정
2008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2010	7월 21일 과거사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는 6·25전쟁 직후 예비검속으로 제주도민 1,150~1,300명이 희생됐다고 ‘진실규명 신청’을 한 195명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서 발표
2012	3월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 실시
2019	12월 제주4·3사건추가진상보고서1권 (제주4·3평화재단 발간)
2021	2월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2022	1월 정부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개시
	10월 27일 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신청자 첫 지급 결정

1990년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주4·3의 진상규명 노력은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지만 많은 성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제주4·3연구소의 헌신적인 증언채록과 신문에 연재되었던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가 출판되면서 제주4·3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피해상황 등 전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4·3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제주4·3발발 50주년인 1999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제주4·3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4·3의 진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이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제주4·3특별법제정 이후 제주4·3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4·3에 담론은 여전히 다양한 해석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에 제주4·3은 시대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다.

1980년대까지 제주4·3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되었으며 우파 진영에서는 제주4·3을 좌익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좌파 진영은 제주4·3을

민중들의 봉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운동이라 주장하였다(양정심, 2006).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민중항쟁론은 제주4·3의 주체를 민중으로 파악하고 제주4·3과 좌익세력과의 관계를 주장하기 보다는 민중들의 항쟁과 고통에 중점을 두어 제주4·3을 해석하는 입장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인권에 초점을 맞춰 국가 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이라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양정심, 2006). 이러한 제주4·3에 대한 담론은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추모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생긴 혼란으로 인해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보는 공산폭동론의 입장과 미군정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추구한 항쟁이라 주장하는 민중항쟁론 사이의 입장 간에 대립으로 나타났다(김성례, 1999). 공산폭동론과 민중항쟁론은 1990년대 이후 제주4·3에 대한 논의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담론의 등장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앞서 말한 주체의 대상이 아닌 ‘학살’에 초점을 두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해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인권 차원의 담론이 중심이 되었다(양정심, 2006).

현재까지도 제주4·3 담론에 관한 해석과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4·3에 대해 명확히 통일된 하나의 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4·3의 담론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2. 제주4·3교육 현황 분석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536). 미 군정기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제주도에 대한 강경진압작전으로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 사라지는 등 제주도는 그야말

로 초토화됐다(허호준, 2022). 특히 초토화 작전 이전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반해 이후부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학살함으로써 제주4·3희생자 대부분이 이때 희생이 되었다(양정심, 2008). 당시 국가 원수에게 제주도민들은 가혹한 고문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하는 등에 인권유린을 행하였다.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권리는 없었으며, 제주도민의 생명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며 폭력과 학살을 일삼았다. 이러한 제주4·3의 진실들이 ‘제주4·3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지면서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³⁾ 또한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 발표문에서도 제주4·3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이러한 점은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압으로써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제주4·3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발해졌다(한운섭, 2010).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제주4·3에 대한 교육은 인권과 평화 화해와 상생이라는 개념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개념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념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한운섭, 2010). 따라서 평소부터 비폭력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념의 초월, 법치주의, 저항권, 소수 인권의 보고 가치, 다양성 존중, 주변도시와 교류, 대안탐색과 협상력 증진 등을 교육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한운섭, 2010).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4·3평화·인권교육중장기계획연구」에서 제주4·평화·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제주4·3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게 하고,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평화가 넘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을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표로 한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또한 진실 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가해자의 폭력과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을 세월이 흘러 고령자인 제주4·3생존희생자, 증언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후세들이 이어받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그러나 한국현대사를 비롯해 역사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김한중 외, 2005). 따라서 일반 대중과 중·고교 그리고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제주4·3교육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제도권 교육에서 제주4·3은 ‘역사’ 교과 속으로 편입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도면회, 2017).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현대 한국사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제주4·3에 대한 기술 또한 생략되거나 약화·축소되었다(양금영, 2020). 그러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은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학생들에게 교육될 수 있었다. 이렇게 중·고교의 교과과정 속에서 긴 시간 변화를 보인 점은 있지만,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주4·3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중·고교의 교과과정 속에서 변화를 보인 점은 있지만, 1950년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근현대사를 서술한 초등학교 『사회』 6-1에서는 제주4·3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도면회, 2017).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주4·3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폭력과 학살의 이미지로 귀결되는 제주4·3을 어린 학생들에게 사건의 사실을 전달,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점이 있다. 제주4·3으로 인해 일어난 폭력과 학살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과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배우고 공감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향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은 1954년 제1차 교육 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변화를 보여왔다. 제도권에서의 교육 과정에서 제주4·3교육은 3차 교육 과정(1974~81) 시기에 발간된 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제1차, 2차 교육 과정 시기에 발간된 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3차와 5차 교육 과정(1987~92)에서 발행된 교과서에의 제주4·3의 기술은 전적으로 진압 주체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의 폭동과,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일으켰다. 제주도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⁵⁾

이렇듯 제주4·3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역시 제주4·3교육을 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이영권, 2007).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제주4·3에 대한 역사 교과서의 서술도 점차 다른 양상을 보인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좌익 계열의 반대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4·3에 대하여 처음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라는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현진호, 2007).

공산주의자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도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⁶⁾

그러나 제주4·3의 배경을 공산주의자의 유혈사태로 인한 무장폭동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1997년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편찬되면서 변화를 맞지만, 교육부가 한국전쟁의 하위항목에 제주4·3을 배치시켜

4)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9.

5)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교육부, 1990.

6)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1996, 교육부.

기술함으로써 항쟁적 측면이나 주민의 자치성 보다는 공산폭동적 서술이 강조되는 지속되는 상황은 여전했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교과서의 집필지침인 7차 교육과정과 한국 근·현대사 교육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 제주4·3과 관련된 내용의 배치에 차이가 있다. 이는 1994년 국사 준거안 파동을 겪으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7차 교육과정은 과거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 성과를 적용하고자 이를 준거안에 포함시키면서 나타난 결과였다(김한중 외, 2005).

[표3] 제7차 교육과정과 ‘한국 근·현대사’ 교육내용 전개의 준거안

제7차 교육과정 ⁷⁾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 전개의 준거안 ⁸⁾
(4) 현대 사회의 발전 (가) 대한민국의 수립 (ㄷ)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수립 ② 유엔의 결의에 따라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할 수 있다. (ㄹ) 6·25 전쟁 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통하여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이 매우 심하였음을 이해한다.	IV. 현대 사회의 발전 (1) 대한민국의 수립 ⑥ 5·10 총선거의 실시 과정과 아울러서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남북협상 등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설명한다. ⑦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그 정통성을 서술하고, 반민법 개정, 농지개혁법 제정 등이 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성격을 설명한다. ⑧ 건국 초기의 국내외 정세와 제주도 4·3사건 및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참고하여 금성, 대한, 두산, 법문사, 중앙, 천재 총 6종의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제주4·3의 주도세력에 대해서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금성), 500명가량의 좌익 세력(대한), 좌익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들(두산), 좌익세력들(법문사), 공산주의자들(중앙),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소요(천재)로 서술하였다(도면희, 2017 : 61). 주도세력의 행동 원인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또는 단독선거 반대로 서술했고, 행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단어로 무장봉기, 무장 폭동, 소요 사건 등으로 표현되었다(한철호, 2011).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교과서 추진 작업이 중단되고 제주4·3특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7, 1997.

8)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 교육부, 2000.

별법 체제에서 축적된 제주4·3진상규명의 성과가 확산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입
 견한 가치중립적 기술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에
 맞추어 검인적 역사교과서의 제주4·3 집필 기준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집필 기준
 은 제주4·3의 역사적 위상을 8.15 광복 이후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 과정
 속에 설정할 것, 제주4·3의 서술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구체
 적으로 할 것, 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의 재발 방지 혹은 인권존중의 인식 제고와
 같은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기술할 것,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
 이는 사례로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0단원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확대 항목에서
 특기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동환, 2017). 2020년 출간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이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학습
 요소’로 반영되며, 제주4·3에 대해 변화하는 역사인식은 제주4·3교육에 점차 교
 육체계 속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제주4·3교육은 고등교육에 기술되는 한계로 교
 육공동체의 또 다른 주체인 초·중등학생을 둘러싼 제주4·3교육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중등학생을 위한 제주4·3교육교재를 개
 발하여 제주4·3교육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렇다면 초등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제주4·3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있는지 직시해야할 필
 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사회 교과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교육과정이 상이한 점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제주4·3교육이 교육체계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역의 역사는 고학년의 시작인 4학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5학년부터
 이루어지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주4·3교육을 반영할 것인가’하는 교
 육 수행 주체자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제주도교육청 주도로 제주4·3교육이 체계화되고 공식화되
 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위원으로, 「제주특별자
 치도 각급 학교의 제주4·3 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4년
 7월 1일 취임한 뒤 열흘이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4·3교육의 명칭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공식화하여⁹⁾

9) 「각급 학교의 제주4·3 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28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제주4·3교육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3월부터 4월까지 매년 약 1개월 동안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였다. 교육주간 동안 학교는 1시간 이상을 제주4·3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초·중등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초·중·고 제주4·3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제주4·3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초등용 교재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교재 개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4·3교육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4·3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소재임이 분명함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4·3을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한다. 교사 중에는 4·3의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령 역사적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화와 인권의 의미와 정교하게 연결 지어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략)… 이에 4·3 평화·인권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¹⁰⁾

그러나 이 교재 개발 또한 앞서 이야기 한 점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중 역사 부분이 들어가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일부분으로 국한된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제주4·3평화·인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2016년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주4·3교육이 제주4·3평화·인권교육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운영 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운영 계획의 추진목적과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대비 2017년 계획에 추가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평화교육”이란 「제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5-6학년을 위한 제주4·3 이야기-제주4·3 평화인권교육 교사용 지도서』, 2017, 7쪽.

항목에 대해서는 강조 표시로 인용자가 표시하였다. 이하 연도별 강조 표시 또한 이전 계획에는 없는 추가 사항에 대한 표시이다.

[표4]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16~2017)

구분		2016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추진 목적	-제주4·3에 대한 기초이해와 평화인권생명의 소중함 인식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 정체성 함양과 평화 애호정신 고취	-4·3에 대한 기초이해와 평화인권생명의 소중함 인식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 정체성 함양과 평화 애호정신 고취
	세부 추진 계획	1. 제주4·3평화인권교육주간 설정·운영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 3.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4.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추진 5. 제주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실시 6.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재개발팀 역량강화 워크숍 7. 학생UCC공모전 8. 4·3관련 각종 행사 지원	1. 제주4·3평화인권교육주간 설정·운영 2. 제주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 3.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 4.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5.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개최 6. 제주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실시 7.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재 개발 팀 역량 강화 연수 8. 제주4·3평화인권교육 학생UCC 공모전 9. 제주4·3관련 각종 행사 지원

‘제주4·3교육’이 제주도교육청 주도로 ‘제주4·3평화·인권교육’으로 공식화되며 제주4·3교육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 함양이 강조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6년부터 운영하는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관을 이루어지는 제주4·3평화·인권교육은 제주4·3에 대한 기초이해와 평화·인권·생명의 소중함 인식,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 정체성 함양과 평화 애호정신 고취를 그 목적¹¹⁾으로 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2016학년도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 2016. 1.

[표5]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18)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교육과	
추진목적	-제주4·3에 대한 기초이해와 평화인권생명의 소중함 인식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 정체성 함양과 평화 애호정신 고취
세부 추진 계획	1. 제주4·3평화·인권주간 운영 2.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학교급별 4·3교재 활용 4.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5.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추진 6. 제주4·3평화·인권교육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7. 자격연수시 제주4·3평화·인권교육 2시간 필수 반영 8. 제주4·3평화·인권교육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전국교사 직무연수 9. 유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4·3이야기 한마당 10. 도내 축제와 연계한 4·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 지역 연계 제주4·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 제주4·3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13. 제주4·3평화·인권교육 다규 제작, 보급 14. 제주어와 4·3을 결합한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15. 제주4·3평화 합창단 콘서트 16.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 작가 초청 강연

2018년도 운영계획의 비전은 ‘평화의 섬 제주를 넘어 평화·인권이 살아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4·3 70주년, 평화·인권교육으로 여는 4·3 100년의 원년’을 주제로 계획되었다. 2018년은 ‘제주4·3사건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세부 추진계획이 이전보다 확장되어 운영의 목표가 ‘4·3의 내면화,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로 설정되었다.

2016년부터 2018년은 평화교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인권교육이었다면 2019년부터 2022년은 평화·인권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내세우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표6]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19)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추진목적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있었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제주4·3의 교훈을 통하여 평화·인권·통일의 소중함을 인식 -제주4·3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제주4·3교육 확산 -제주4·3의 교훈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제주4·3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세부 추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4·3평화·인권교육주간 운영 2.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학교급별 제주4·3교재 활용 4.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5.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추진 6. 제주4·3평화·인권교육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7. 자격연수시 4·3평화·인권교육 2시간 필수 반영 8. 제주4·3평화·인권교육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전국교사 직무연수 9. 유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4·3이야기 한마당 10. 지역 연계 4·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 제주4·3평화·인권교육 다규 제작, 보급 12. 제주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표7] 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있었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제주4·3의 교훈을 통하여 평화·인권·통일의 소중함을 인식 -제주4·3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제주4·3교육 확산 -제주4·3의 교훈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제주4·3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세부 추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 제주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활성화 연찬회 2.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추진 - 자격연수 시 제주4·3평화·인권교육 2시간 필수 반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제주4·3평화·인권교육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전국교사 직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역량강화 도외 연수 지원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 평화·인권교육 교류 세미나 개최 - 찾아가는 학교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운영
	<p>3. 학생의 제주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공감 4·3 이야기 한마당 운영 - 지역 연계 4·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제주4·3평화·인권 동아리 지원 - 제주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 한국사 교과서 제주4·3 내용 편제 관련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제주4·3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으로 전환되면서 교과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제주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제주4·3의 교훈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연계를 통한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에서 분야별 세부 항목이 세분화되었다.

2020년에는 제주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중장기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및 평화·인권교육 교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연수 양성 지원에 적극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학생의 제주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계획에서는 각종 동아리를 지원하고 도외교육사업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8]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21)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있었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제주4·3의 교훈을 통하여 평화·인권·통일의 소중함을 인식 -제주4·3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제주4·3교육 확산 -제주4·3의 교훈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제주4·3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세부	1. 제주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활성화 연찬회 - 제주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 제주4·3 및 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p>2.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연수 시 4·3평화·인권교육 2시간 필수 반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 수업사례로 배우는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추진 - 제주4·3과 평화·통일 직무연수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 - 찾아가는 ‘4·3없는 그림책’ 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운영 <p>3. 학생의 제주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 토크 콘텐츠 공모 - 제주4·3평화·인권 동아리 지원 - 제주4·3 평화 스피치 대회 - 제주4·3 평화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발간 - 제주4·3평화·인권 영상교육자료 ‘흔디 가게 4380’ 제작 및 배부 - 제주4·3유적지 현장체험학습 영상자료 제작 및 배부 -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포럼 개최 - 보드게임(놀이판)을 활용한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p>4.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제주4·3평화·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계 제주4·3 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지원
-------	-----------------------------------------------------------------------------------------------------------------------------------------------------------------------------------------------------------------------------------------------------------------------------------------------------------------------------------------------------------------------------------------------------------------------------------------------------------------------------------------------------------------------------------------------------------------------------------------------------------------------------------------------------------------------------------------------------------------------------------------------------------------------------------------------------------------------------------------------------------------------------------------------------------------------------------------------------------------------------------------------------------------------------------------------------------------------------------------------------------------------------------------------------------------------------------------------------------------------------------------------------------------------------------------------------------------------

[표9] 제주4·3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202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있었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제주4·3의 교훈을 통하여 평화·인권·통일의 소중함을 인식 -제주4·3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제주4·3 교육 확산 -제주4·3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제주4·3 교훈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세부 추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 제주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 타시·도 평화·인권교육 교류협력 추진 2.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사례공유 직무연수 운영 - 자격연수 시 제주4·3평화·인권교육 2시간 필수 반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 ‘제주4·3의 흔적을 찾아서’ 제주4·3평화·인권교육 원격 연수 운영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장학자료(중등교재) 개발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 찾아가는 ‘4·3없는 그림책’ 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운영 3. 학생의 제주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 토크 콘텐츠 공모 - 제주4·3유적지 현장체험학습 영상자료 제작 및 배부 -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평화포럼 개최 -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 운영 - ‘찾아가는 4·3청소년 평화 예술제’ 지원 4.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4·3평화·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 지원 -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 지역 연계 제주4·3 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

특히 2021년 학생의 제주4·3평화·인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포럼과 현장학습, 체험활동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생의 동기유발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2022년에도 교사 역량 관련 2건과 학생 역량과 관련해 1건, 평화·인권교육에 교사 부분 1건, 학생 역량 부분 1건 등 추진 계획의 변화에 따라 제주4·3평화·인권교육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4·3평화·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4·3관련 기관에서도 제주4·3평화·인권교육과 관한 사업이 운영되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초·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4·3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인권교육 사업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0]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인권교육 사업 운영 현황

제주4·3평화재단 4·3교육 사업 운영 현황(2022년도 기준)	
추진목적	-평화, 인권, 정의, 화해 상생 등 제주4·3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는 다양한 제주4·3문화, 교육 등 기념사업 추진 -제주문화콘텐츠 및 교육사업을 통한 제주의 이해와 공감 확산, 세대전승에 기여
세부 추진 계획	1. 전국교원 제주4·3직무연수 2.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3. 제주4·3동백서포터즈 운영 4. 시민4·3아카데미 5. 어린이 4·3문화교실 6. 어린이체험관 교구재 제작 7. 제주4·3어린이체험관 운영 8. 찾아가는 4·3어린이체험관 9.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 10.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해설 영상 제작 11.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12. 제주4·3동백서포터즈 운영

이 외에도 제주4·3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제주4·3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4·3연구소는 ‘열린 시민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주4·3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제주민예총은 제주4·3평화·인권교육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청소년 4·3문화예술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청소년 4·3이야기 마당’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주4·3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보다 현저히 낮게 운영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주4·3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

성을 위해 학생 주도의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하고 있었다. 영상제작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타진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제주4·3교육 또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관련 자료 소개와 배포에 그치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에 외에 제주4·3관련 기관에서 운영된 제주4·3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체험과 시민교양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제주4·3역사에 대한 열린 콘텐츠와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주4·3평화재단의 어린이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제주4·3교육 프로그램이 발하는 영향과 한계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제주4·3과 관련한 영상, 미술, 사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4·3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공감하며 평화·인권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4·3교육과 평화·인권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 중요함을 공감하였다. 초등학생에게 역사교육 실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부터 제주4·3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육이 평화·인권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의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였다.

3. 평화·인권, 교육의 이론적 논의

1) 평화·인권 교육

평화의 개념은 문화권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좁은 의미의 소극적 평화와 넓은 의미의 적극적 평화로 구분된다. 평화의 어원을 한국어로 풀이하면 ‘평화’의

평(平)은 평등, 평안, 평형 등을 뜻하며, ‘고른’, ‘곧고루’를 의미한다. 화(化)는 화합, 조화, 중도 등을 뜻하며, ‘어울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는 모두가 아무 문제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 풀이되며, ‘곧고루 어울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최관경, 1995). 이 외에도 문화권별 평화의 어원은 다양하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내적 자아와 개인의 평화를 뜻하는 ‘산티’(Santi), 전쟁 상태에서 평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이레네’(eirene), 힘에 의한 평정이라는 라틴어의 ‘팍스’(pax)가 있다(임정선, 2006).

평화를 학술적으로 개념화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포함될 수 있다(Robin J. Burns 외, 2005). 소극적 평화는 국가 간에 전쟁이 없거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접적, 물리적 폭력, 폭동, 전쟁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전쟁의 반대 개념이다. 적극적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 생명, 안녕, 공존 등 긍정적측면의 인간다운 삶을 포함한다. 전쟁, 질병에 대한 해방과 생활환경의 보호 등이 적극적 평화에 포함된다(Robin J. Burns 외, 2005).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인식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임정선, 2006). 그러나 평화의 본질적 성격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비폭력적 사회변혁과 협동을 함축하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추병완, 2002).

한편,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속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만에 하나 위협을 느낀다면 자신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지속된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당연히 갖는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라고 정의되는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며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김민경, 2007).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1조에 명시되어있다.¹²⁾ 이와 같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며, 존엄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김영로, 2008).

인권의 역사는 서구에서 유래된 것이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인권 개념의 역사는 서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념의 역사적 과정이 그 개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개념이 특정한 역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보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Michael Freeman, 2005). 이렇듯 인권의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정의되어왔으며 인권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한 인권운동은 역사 속에서 새로워지고 발전해왔다(박현희, 2003).

현대적 인권의 개념은 유엔 창설 조항에서의 모든 회원국들은 인종과 성, 언어와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공동 및 개별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한 것에서 시작되어,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의 대표들은 거기에 포함된 권리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에 대한 공통된 기준임을 확인하였다(구정화, 1997 : 97).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권리의 개념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즉, 본 연구에서는 인권을 인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보편적인 가치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면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한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사회적 변화에 의해 침해받는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인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인권은 환경과 사회적인 변화,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라는 한 몸으로 인간에게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12)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그러나 평화와 인권의 영역은 구분되어 인식되어졌다. 인식은 지식과 같은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식은 아는 작용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키는 데 반해, 인식은 성과와 함께 아는 작용도 포함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인식의 과정을 통하여 객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 세계에 작용을 통해 변화시키고 개조한다. 인식의 의의는 단순히 객관 세계, 즉 자연·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지적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데 있다(임석진 외, 2009). 따라서 평화와 인권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교육으로부터 실현 될 수 있다. 학자들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평화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강순원(2000)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생활에 위험이 되는 전쟁, 폭력, 빈곤, 억압 및 차별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비폭력적 방법으로 개인적 태도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이라고 본다. 최관경(1996)은 평화교육을 평화의 능력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했으며, 지식 전달 뿐만이 아니라 평화운동과 직접적 영향이 되는 실천적 교육이며, 실제 평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 박보영(2006)은 평화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관계의 요소들 속에서 서로를 위해 공존, 상생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평화교육은 삶의 구조적 관계에서 서로의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으로 본다. 임정선(2006)의 연구에서는 평화교육을 시대별, 지역별, 사회구조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평화교육의 내용은 변화되어 왔으나, 평화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비폭력적 상태의 인간된 삶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한반도의 분단된 삶을 비평화적 요소로 보고 통일된 삶, 평화적인 삶을 위해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삼열(1991)의 연구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관계를 벗어나 폭력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 해결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평화교육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인권교육, 세계화교육, 시민권교육, 가치교육 등을 포함한다(박보영, 2006). 평화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실천된다는 것은 평화교육의 보편성을 생각하게 한다. 평화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살펴보면 1974년 유네스코의 18번째 연례회의에서 평화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교육과 협동이라는 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박보영, 2006). 평화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로 정립되었으며(송두환, 2022),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제2부 제D장 제72항에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교육, 훈련, 홍보가 공동체 사이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의 증진과 달성,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이승한 외, 2011 : 131). 또한 인권교육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 사회교육운동의 목표인 인종, 민족, 성, 연령,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것에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적인 인간애를 위한 이해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현대교육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된다(이동욱, 2003).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근본적인 인권실현이 인권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교육은 공동체와 사회적 측면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이승한 외, 2011).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유엔인권위원회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 분쟁을 방지하고, 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며 민주적 제도 하의 의사결정과정에 사람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승한 외, 2011). 이후 2011년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제2조에서 인권교육 및 훈련은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특히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과 증진 기여하도록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훈련·정보제공·인식개선·학습 활동들로 ①(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 규범 및 원칙,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와 보호를 위한 체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제공을 포함 ②(인권을 통한 교육) 교육자와 학습자 양쪽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학습 및 교수를 포함 ③(인권을 위한 교육)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채택하였다(법무부, 2018 : 275).

최근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권기구가 설립되고, 인권담당부서가 설치되면서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추진 사업이 되었다. 일부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인권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성정숙 외, 2021).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은 현재에도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이라고 불리며 고유한 성격을 밝힌다. 그러나 평화교육, 시민의식과 가치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교육 혹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제도 내 모든 노력은 그 내용과 방법론에 인권 가치를 포함한다(이승한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평화·인권이 함께 형성되는 과정으로써 그 교육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평화·인권교육이라는 정의 하에 관련된 이후 논의들을 전개할 것이다.

2) 교육의 구성주의

교육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개인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합리론적 입장인 객관주의와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내에서 창출된다고 보는 경험론적인 입장인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 구성주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지만, 구성주의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공두뇌학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상숙 외, 2013). 구성주의의 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들은 인공두뇌학 연구자인 Foerster, 발달 심리학을 통해 인식론을 발전시킨 Piaget, 생물학적 인지 이론의 Maturana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은 학계에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

성주의를 하나의 정해진 이론으로 보는 것은 어려우나 심리학, 교육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상숙 외, 2013).

교육에서 구성주의는 Dewey, Piaget, Vygotsky 등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Vygotsky는 인지 발달이론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인지발달은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인지 발달이론은 교육 분야에서 구성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송인섭 외, 2019).

교육학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식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동주의나 인지주의와 같은 객관주의 인식론에 대비된 하나의 인식론으로 등장하였다(김춘경 외, 2016). 객관주의 인식론에서 지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객관적 관점에서 인식되는 반면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며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송인섭 외, 2019). 구성주의는 지식과 학습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Piaget 이론에 기초하며, 지식은 개인의 인지구조의 변화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개인의 인지적 혼란과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송인섭 외, 2019). 사회적 구성주의는 Vygotsky 이론에서 발전했으며 인지적 구성주의와는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과 내면화 과정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고 개인의 인식만이 아닌 성인 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송인섭 외, 2019).

정리하면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학습자 중심으로 주관적이며, 주도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내면에서 변화시켜 그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향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다. 학습자, 즉 학생들에게 수업(=교육)은 지식, 가치, 기능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 가치, 기능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는 수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 방식은 초등학생들에게 Vygotsky, Piaget 등 아동의 인지 발달론에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주4.3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을 인식하는 과정이야말로 구성주의에 입각한 수업의 방법적 측면과 관련 되어있다.

3. 선행 연구 검토

제주4·3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제주4·3의 역사를 이해하고 평화와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4·3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을 제주4·3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4·3교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제주4·3교육의 하위개념 혹은 교육 대상의 계층에 따라 제주4·3교육, 제주4·3평화교육, 제주4·3평화·인권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주4·3교육의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진다.

한국 현대사에서 제주4·3은 한반도 분단 상황으로 인한 사회 현실론 측면의 편향적 사관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시되었던 시기에 제주4·3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주4·3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에 들어 활발해졌다. 박찬식(2001)은 한국전쟁 당시 제주4·3 관련 군법 회의에 의해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을 중심으로 학살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민간인 학살 실태 조사의 사각지대로 분류되었던 제주4·3 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을 밝혔다. 고성만(2005)은 역사적 관점에서 제주4·3의 대한 담론의 주목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별로 당시 환경적 요인과 주도세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담론의 구성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요인이 작동하였는가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제주4·3을 역사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4·3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제주4·3평화·인권교육으로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인식하게 하였다. 양정심(2006)은 항쟁에 중점을 두고 항쟁주체세력인 남로당의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진상규명운동을 분석했다. 강성현(2002)의 연구는 제주4·3을 자발적 저항과정에서 확대된 민간인 대량학살론으로 해석하고 제주4·3에 관한 학살사건들을 기술하는 것과 더불어 제주4·3의 진상을 역사적,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허호준(2003)은 해방직후 제주도의 정치, 사회경제적 배경, 미군정의 실정 등을 검토하며 당시 민간인 대량학살과 이

에 대한 미군정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역사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찬(2001)은 제주4·3의 발생으로 교육시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인명피해와 인권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 실태를 벗어나 교육적 측면에서 제주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주4·3교육과 관련하여 강순문(2001)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제주4·3을 주제로 한 특설단원을 설정하고 다양한 제주4·3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교육방안과 제주4·3유적지를 활용한 초등학교 대상 현장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진호(2007)는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주4·3교육 인식을 조사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제주4·3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였다. 한운섭(2010)은 제주4·3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9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화조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제주4·3교육을 행정학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양금영(2020)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주4·3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인권의 가치를 중점으로 하는 수업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4·3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앞서 분석한 결과,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주4·3교육을 분석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제주4·3교육에 대한 인식, 또는 제주4·3교육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 교과서와 제주4·3교육자료의 분석 등으로 한정되어 연구되고 있다. 특히 평화와 인권의 영역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7년 이상 제주4·3교육을 비교과 과정으로 실시해온 제주지역에서 제주4·3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제주 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제주4·3교육과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어떻게 구분하고 제주4·3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학문적 고민이 치열하게 필요하다.

[표11] 선행 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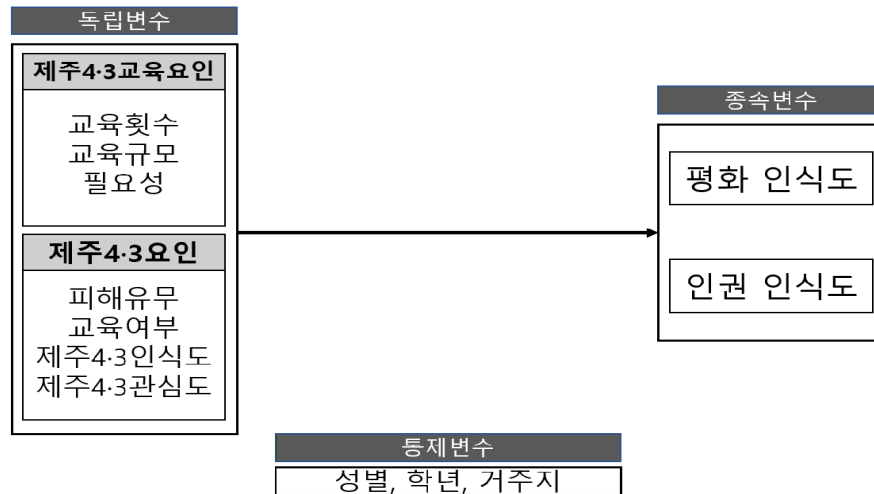
저자 (연도)	논문명	내용
박찬식 (2001)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 명부' 를 중심으로	제주4·3관련 수형인을 중심으로 학살의 유형을 조사함으로써 수형인 학살의 실상을 밝힘.
윤석찬 (2001)	4·3이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4·3으로 교육시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4·3이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강순문 (2001)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 학습 방안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제주4·3 교육 방안을 제시함.
강성현 (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제주4·3의 진상을 역사적,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함.
허호준 (2003)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5.10선거를 중심으로	해방직후 미군정의 실정 등을 검토하며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고성만 (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4·3사건의 담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4·3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음.
양정심 (2006)	제주4·3항쟁 연구	항쟁에 중점을 두고 항쟁주체세력인 남로당의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진상규명운동을 분석함.
현진호 (2007)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인식	제주도 중등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주4·3교육 인식을 조사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4·3교육의 방향을 제시함.
한윤섭 (2010)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연구	제주4·3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고 제주4·3교육을 행정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
양금영 (2020)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 명부' 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주4·3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수업 방안을 모색함.

Ⅲ.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제주4·3교육이 제주도내 초등학생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화, 인권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초등학생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제주4·3교육요인과 제주4·3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성별, 학년, 거주지로 설정하였다. 제주4·3교육요인으로는 교육 횟수, 교육규모,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제주4·3요인은 피해유무, 교육여부¹³⁾, 제주4·3 인식도와 관심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제시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4·3교육이 제주도내 초등학생 인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통해 제주4·3교육이 제주도내 초등학생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3) 제주4·3교육요인은 교육경험에 따른 변수이기 때문에 교육여부는 제주4·3요인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 설정】

[가설 1]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평화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인권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평화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인권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설계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틀을 구축한 후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방법(Survey method)을 이용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 대상은 제주도내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제주도내 12개교 초등학교에 설문협조 요청을 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관별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최종 분석은 배부된 설문지 620부 가운데 회수된 59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자료 및 조사도구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연구자의 경험과 학계 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하여 설문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 3, 4학년 대상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해 사전 면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4·3 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주4·3교육요인 7개 문항, 제주4·3의 인식도, 관심도 등을 중심으로 제주4·3요인 4개 문항, 제주4·3교육영향 요인 4개 문항, 인구통계적요인 3개 문항, 문자데이터 활용을 위한 단답형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구성의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설문의 구성

특성	설문 내용	문항 번호
인적특성요인	성별, 학년, 지역	1, 2, 3
제주4·3요인	피해 유무	4
	교육 여부	7
	인식도	5
	관심도	6
제주4·3교육 요인	교육 횟수	7-1
	교육 규모	7-3
	교육 방법	7-2
	4·3교육 필요성	8, 8-1, 8-2, 8-3
교육영향	4·3 이해도	7-4
	평화 인식도	9
	인권 인식도	9
	장래영향	10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 .01, .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제주4.3에 대한 피해유

무, 교육경험 유무 및 인식, 관심도 및 제주4.3에 대한 교육 경험에 대한 실태 및 필요성 인식, 평화·인권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제주4·3 피해유무, 교육 경험 유무, 인식도, 관심도,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과 평화·인권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제주4·3 피해유무, 교육경험 유무, 인식도, 관심도가 평화·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평화·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설문 응답의 표본 수 594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성별은 남자 296명(49.8%), 여자 298명(50.2%)로 나타났고, 학년은 3학년이 375명(63.1%), 4학년이 219명(36.9%)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는 제주시가 577명(97.1%), 서귀포시가 17명(2.9%)로 나타났다.

[표1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94)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96	49.8
	여자	298	50.2
학년	3학년	375	63.1
	4학년	219	36.9
거주지	제주시	577	97.1
	서귀포시	17	2.9
전체		594	100.0

2.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제주4·3에 대한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4·3 희생자 혹은 희생자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14]와 같으며, 응답으로 없다가 85.2%, 있다가 14.8%로 나타났고, 제주4·3 인식도에 대해 살펴보면 조금 알고 있다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가 34.2%,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0.5%, 거의 모른다가 5.9%, 전혀 모른다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4·3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조금 많다가 26.6%, 매우 많다가 18.9%, 거의 없다가 10.1%, 전혀 없다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4·3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있다가 91.4%, 없다가 8.6%로 나타났다.

[표14] 제주4·3에 대한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

		빈도(명)	비율(%)
제주4·3 피해유무	없다	506	85.2
	있다	88	14.8
제주4·3 인식도	전혀 모른다	10	1.7
	거의 모른다	35	5.9
	조금 알고 있다	224	37.7
	잘 알고 있다	203	34.2
	매우 잘 알고 있다	122	20.5
제주4·3 관심도	전혀 없다	35	5.9
	거의 없다	60	10.1
	보통이다	229	38.6
	조금 많다	158	26.6
	매우 많다	112	18.9
제주4·3 교육여부	있다	543	91.4
	없다	51	8.6
전체		594	100.0

제주4·3교육 횟수, 규모 및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으며, 지난 3년 동안 제주4·3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1-3회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5회가 20.3%, 6-7회가 14.2%, 10회 이상 4.2%, 8-9회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함께 받은 친구들의 명수에 대해 살펴보면 10-2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가 7.4%, 친구들 없이 가족들과 교육받았다가 5.0%, 30-4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가 2.2%, 친구들 없이 혼자 교육받았

다가 1.8%, 50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가 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이 제주4·3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23.8%, 보통이다가 14.7%,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0.2%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제주4·3교육 횟수, 규모 및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빈도(명)	비율(%)
교육 횟수	1-3회	322	59.3
	4-5회	110	20.3
	6-7회	77	14.2
	8-9회	11	2.0
	10회 이상	23	4.2
교육 규모	친구들 없이 혼자 교육받았다	10	1.8
	친구들 없이 가족들과 교육받았다	27	5.0
	1-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40	7.4
	10-2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452	83.2
	30-4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12	2.2
	50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2	0.4
제주4·3 이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0.2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9	1.7
	보통이다	80	14.7
	조금 도움이 되었다	129	23.8
	많은 도움이 되었다	324	59.7
전체		543	100.0

지금까지 받았던 제주4·3교육의 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16]와 같으며, 학교 수업의 제주4·3교육이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튜브 시청이 44.8%, 제주4·3어린이 체험관 방문을 통한 교육이 27.4%, TV 및 대중매체가 23.8%, 유적지 견학을 통한 제주4·3교육이 22.3%, 제주4·3강사의 제주4·3교육이 18.8%, 기타가 14.5%, 제주4·3행사 방문을 통한 제주4·3교육이 9.9% 순으로 나타났다

[표16] 지금까지 받았던 제주4·3교육의 방법

		빈도(명)	비율(%)
교육방법 (다중응답)	학교 수업의 제주4·3교육	481	88.6%
	제주4·3강사의 제주4·3교육	102	18.8%
	TV 및 대중매체	129	23.8%
	유튜브 시청	243	44.8%
	유적지 견학을 통한 제주4·3교육	121	22.3%
	제주4·3행사 방문을 통한 제주4·3교육	54	9.9%
	제주4·3어린이 체험관 방문을 통한 제주4·3교육	149	27.4%
	기타	79	14.5%
전체		543	100.0%

제주4·3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표17]와 같으며, 학교에서의 제주4·3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필요하다는 24.1%, 보통이라는 16.8%, 거의 필요하지 않다가 3.4%,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필요하다는 28.8%, 보통이라는 19.0%, 거의 필요하지 않다가 4.0%,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필요하다는 28.6%, 보통이라는 25.3%, 거의 필요하지 않다가 3.7%,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17] 제주4·3교육에 대한 필요성

		빈도(명)	비율(%)
교육필요성 (학교)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1.5
	거의 필요하지 않다	20	3.4
	보통이다	100	16.8
	조금 필요하다	143	24.1
	매우 필요하다	322	54.2
교육필요성 (체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1.2
	거의 필요하지 않다	24	4.0
	보통이다	113	19.0
	조금 필요하다	171	28.8
	매우 필요하다	279	47.0
교육필요성 (행사)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1.2
	거의 필요하지 않다	22	3.7
	보통이다	150	25.3
	조금 필요하다	170	28.6
	매우 필요하다	245	41.2
전체		594	100.0

평화·인권 인식도는 [표18]과 같으며, 평화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가 31.0%, 조금 알고 있다가 19.5%, 거의 모른다가 4.5%, 전혀 모른다가 2.0% 순으로 나타났고, 인권 인식도에 대해 살펴보면 조금 알고 있다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가 25.1%,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1.4%, 거의 모른다가 11.8%, 전혀 모른다가 8.1% 순으로 나타났다.

[표18] 평화·인권 인식도

		빈도(명)	비율(%)
평화 인식도	전혀 모른다	12	2.0
	거의 모른다	27	4.5
	조금 알고 있다	116	19.5
	잘 알고 있다	184	31.0
	매우 잘 알고 있다	255	42.9
인권 인식도	전혀 모른다	48	8.1
	거의 모른다	70	11.8
	조금 알고 있다	200	33.7
	잘 알고 있다	149	25.1
	매우 잘 알고 있다	127	21.4
전체		594	100.0

3. 상관관계 분석

제주4·3요인(피해유무, 교육여부, 인식도, 관심도), 제주4·3교육요인(교육 횟수,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과 평화, 인권 인식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19]와 같으며, 제주4·3 인식도와 평화 인식도와는 $r=.360$, $p<.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4·3 관심도와 평화 인식도와는 $r=.245$, $p<.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제주4·3 관심도가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4·3교육여부와 평화 인식도와는 $r=.135$, $p<.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교육 횟수($r=.141$, $p<.01$), 학교에서의 교육필요성($r=.280$, $p<.01$),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필요성($r=.261$, $p<.01$), 행사를 통한 교육필요성($r=.329$, $p<.01$)과 평화 인식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 체험활동, 행사를 통한 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할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19] 제주4·3요인, 제주4·3교육요인과 평화·인권 인식도의 상관관계

	제주 4·3 피해유무	제주 4·3 인식도	제주 4·3 관심도	제주 4·3 교육여부	교육 횟수	교육 규모	교육 필요성 (학교)	교육 필요성 (체험)	교육 필요성 (행사)	평화 인식도	인권 인식도
제주4·3 피해유무	1										
제주4·3 인식도	.046	1									
제주4·3 관심도	.016	.408 **	1								
제주4·3 교육여부	-.092 *	.193 **	.070	1							
교육 횟수	.118 **	.197 **	.204 **	-	1						
교육 규모	-.095 *	-.137 **	-.132 **	-	-.139 **	1					
교육 필요성 (학교)	-.020	.268 **	.385 **	.222 **	.109 *	-.028	1				
교육 필요성 (체험)	.018	.257 **	.400 **	.179 **	.163 **	-.013	.627 **	1			
교육 필요성 (행사)	.013	.208 **	.381 **	.142 **	.147 **	-.06 8	.545 **	.649 **	1		
평화 인식도	.075	.360 **	.245 **	.135 **	.141 **	-.05 6	.280 **	.261 **	.329 **	1	
인권 인식도	.096 *	.363 **	.261 **	.114 **	.160 **	-.102 *	.232 **	.205 **	.267 **	.446 **	1

*p<.05,**p<.01

제주4·3 피해유무와 인권 인식도와는 $r=.096$, $p<.05$ 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4·3 인식도($r=.363$, $p<.01$), 제주4·3관심도($r=.261$, $p<.01$), 제주4·3교육여부($r=.114$, $p<.01$)와 인권 인식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제주4·3 인식도와 관심도가 높을수록, 제주4·3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횟수와 인권 인식도와는 $r=.160$, $p<.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규모와 인권 인식도와는 $r=-.102$, $p<.05$ 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교육필요성과 인권 인식도와는 $r=.232$, $p<.01$,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필요성과 인권 인식도와는 $r=.205$, $p<.01$, 행사를 통한 교육필요성과 인권 인식도와는 $r=.267$, $p<.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교육 횡수가 많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학교, 체험활동, 행사를 통한 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할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 규모가 클수록 인권 인식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4. 가설 검증 분석

[가설 1]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평화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거주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평화 인식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20]과 같다.

[표20]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 관심도가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2.226	.402		5.535	.000
성별	.016	.076	.008	.205	.838
학년	-.044	.079	-.021	-.555	.579
거주지	.372	.228	.063	1.630	.104
제주4·3 피해유무	.196	.107	.070	1.837	.067
제주4·3 인식도	.324	.046	.303	7.028***	.000
제주4·3 관심도	.110	.039	.120	2.844**	.005
제주4·3 교육여부	-.255	.138	-.072	-1.848	.065
F(p)=15.263***, $R^2 = .154$					

p<.01, *p<.001

[가설 1]을 검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남자=0, 여자=1), 학년(3학년=0, 4학년=1), 거주지(제주시=0, 서귀포시=1)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5.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5.263으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4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4·3 인식도($\beta=0.303, p < .001$)는 평화 인식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관심도($\beta=0.120, p < .01$)이 평화 인식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제주4·3 관심도가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주4·3 피해유무와 교육여부는 $p > .05$ 로 나타나, 평화 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주4·3 인식도, 제주4·3 관심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설 2]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인권 인식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거주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제주4·3 피해경험, 교육경험 및 인식도, 관심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권 인식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21]과 같다.

[표21] 제주4·3 피해유무, 교육여부 및 인식도, 관심도가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B	SE			
(상수)	1.014	.468		2.165	.031
성별	-.114	.089	-.048	-1.282	.200
학년	.426	.092	.174	4.636***	.000
거주지	.103	.265	.015	.389	.697
제주4·3 피해유무	.297	.125	.090	2.389*	.017
제주4·3 인식도	.344	.054	.270	6.397***	.000
제주4·3 관심도	.148	.045	.136	3.289***	.001
제주4·3 교육여부	-.219	.161	-.052	-1.362	.174
F(p)=19.488***, $R^2 = .189$					

* $p < .05$, *** $p < .001$

[가설 2]을 검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남자-0, 여자-1), 학년(3학년-0, 4학년-1), 거주지(제주시-0, 서귀포시-1)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8.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9.488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4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 학년($\beta = .174$, $p < .001$)는 인권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4학년일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4·3 피해유무($\beta = .090$, $p < .05$)는 인권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4·3 인식도($\beta = .270$, $p < .001$), 제주4·3 관심도($\beta = .136$, $p < .001$)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제주4·3 관심도가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인권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주4·3 인식도, 제주4·3 피해유무, 제주4·3 관심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설 3]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평화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거주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평화 인식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필요성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2.498	.407		6.140	.000
성별	-.146	.078	-.076	-1.867	.062
학년	-.004	.081	-.002	-.043	.965
거주지	.252	.228	.046	1.104	.270
교육 횟수	.078	.038	.085	2.059*	.040
교육 규모	-.056	.061	-.038	-.915	.360
교육필요성(학교)	.160	.055	.149	2.906**	.004
교육필요성(체험)	.003	.061	.003	.048	.962
교육필요성(행사)	.236	.056	.227	4.244***	.000
F(p)=9.777***, $R^2 = .128$					

*p<.05, **p<.01, ***p<.001

[가설 3]을 검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남자-0, 여자-1), 학년(3학년-0, 4학년-1), 거주지(제주시-0, 서귀포시-1)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제주4·3 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2.8%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777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 횟수($\beta=.085$, $p<.05$), 학교에서의 제주4·3교육의 필요성($\beta=.149$, $p<.01$), 행사 참여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beta=.227$, $p<.001$)이 평화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에서의 제주4·3교육의 필요성 및 행사 참여를 통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높게 자각할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설 4]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인권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거주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권 인식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23]과 같다.

[표23] 제주4·3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1.795	.493		3.645	.000
성별	-.240	.095	-.102	-2.527*	.012
학년	.470	.098	.192	4.798***	.000
거주지	-.025	.276	-.004	-.090	.928
교육 횟수	.122	.046	.109	2.652**	.008
교육 규모	-.123	.073	-.069	-1.670	.095
교육필요성 (학교)	.172	.067	.131	2.588**	.010
교육필요성 (체험)	-.018	.074	-.014	-.248	.804
교육필요성 (행사)	.238	.067	.187	3.546***	.000
F(p)=11.647***, $R^2 = .149$					

***p<.001

[가설 4]을 검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남자-0, 여자-1), 학년(3학년-0, 4학년-1), 거주지(제주시-0, 서귀포시-1)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제주4·3 교육 횟수, 교육 규모 및 교육의 필요성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4.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1.647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9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성별, 학년이 인권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일수록 인권 인식도가 낮아짐을 학년이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횟수($\beta=.109$, $p<.01$), 학교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

성($\beta=.131, p<.01$)이 인권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참여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beta=.187, p<.001$)이 인권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를 통한 교육 필요성 및 행사 참여를 통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24]는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표이다. [모델1]은 제주4·3요인(피해유무, 교육여부, 인식도, 관심도)과 평화 인식도에 대한 분석결과이고, [모델2]는 제주4·3교육요인(교육 횟수, 규모, 필요성)과 평화 인식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델1]과 [모델2]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리하였으며, [모델3]은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3]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거주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평화 인식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남자-0, 여자-1), 학년(3학년-0, 4학년-1), 거주지(제주시-0, 서귀포시-1)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21.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3.178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4·3 인식도($\beta=.306, p<.001$), 학교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 ($\beta=.098, p<.05$), 행사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 ($\beta=.208, p<.001$)이 평화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학교와 행사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24] 제주4·3요인 및 제주4·3교육요인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β (SE)	β (SE)	β (SE)
(상수)	(.402)	(.407)	(.438)
성별	.008 (.076)	-.076 (.078)	-.038 (.076)
학년	-.021 (.079)	-.002 (.081)	-.033 (.078)
거주지	.063 (.228)	.046 (.228)	.075 (.219)
제주4·3 피해유무	.070 (.107)		.061 (.109)
제주4·3 인식도	.303*** (.046)		.306*** (.047)
제주4·3 관심도	.120** (.039)		.012 (.041)
제주4·3 교육여부 ¹⁴⁾	-.072 (.138)		
교육 횟수		.085* (.038)	.033 (.037)
교육 규모		-.038 (.061)	-.005 (.058)
교육필요성 (학교)		.149** (.055)	.098* (.053)
교육필요성 (체험)		.003 (.061)	-.031 (.059)
교육필요성 (행사)		.227*** (.056)	.208*** (.053)
F(p)	15.263***	9.777***	13.178***
R^2	.154	.128	.214

p<.01,*p<.001

[표25]는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표이다. [모델1]은 제주4·3요인(피해유무, 교육여부, 인식도, 관심도)과 인권 인식도에 대한 분석결과이고, [모델2]는 제주4·3교육요인(교육 횟수, 규모, 필요성)과 인권 인식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델1]과 [모델

14) 종속변수인 평화 인식도를 포함하는 모형에서 모델3의 교육여부는 결측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분석에서 삭제되었다.

2]은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리하였으며, [모델3]은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이 평화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3]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거주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권 인식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4·3요인과 제주4·3교육요인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남자-0, 여자-1), 학년(3학년-0, 4학년-1), 거주지(제주시-0, 서귀포시-1)는 터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22.7%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4.167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학년이 인권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4·3 피해유무($\beta = .089, p < .05$), 제주4·3 인식도($\beta = .250, p < .001$), 행사를 통한 제주4·3교육 필요성($\beta = .160, p < .01$)이 인권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4·3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행사를 통한 제주4·3교육 필요성이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25] 제주4·3요인 및 제주4·3교육요인이 인권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β (SE)	β (SE)	β (SE)
(상수)	(.468)	(.493)	(.533)
성별	-.048 (.089)	-.102* (.095)	-.073 (.092)
학년	.174*** (.092)	.192*** (.098)	.163*** (.094)
거주지	.015 (.265)	-.004 (.276)	.025 (.266)
제주4·3 피해유무	.090* (.125)		.089* (.133)
제주4·3 인식도	.270*** (.054)		.250*** (.057)
제주4·3 관심도	.136*** (.045)		.086 (.050)
제주4·3 교육여부 ¹⁵⁾	-.052 (.161)		
교육 횟수		.109** (.046)	.052 (.045)
교육 규모		-.069 (.073)	-.031 (.071)
교육필요성 (학교)		.131** (.067)	.076 (.065)
교육필요성 (체험)		-.014 (.074)	-.053 (.071)
교육필요성 (행사)		.187*** (.067)	.160** (.065)
F(p)	19.488***	11.647**	14.167***
R^2	.189	.149	.227

*p<.05,**p<.01,***p<.001

15) 종속변수인 인권 인식도를 포함하는 모형에서 모델3의 교육여부는 결측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분석에서 삭제되었다.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제주4·3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제주4·3교육이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인식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요인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요인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제주4·3교육과 평화·인권 인식도에 대해 설계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제주4·3교육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4·3교육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외에 유튜브를 통한 제주4·3교육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제주4·3어린이체험관 방문과 유적지 견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4·3요인, 제주4·3교육요인과 평화, 인권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주4·3 피해유무와 인권 인식도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4·3 인식도와 평화, 인권 인식도의 관계도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주4·3 관심도와 평화, 인권 인식도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교육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 횟수와 학교, 행사참여를 통한 교육, 체험 교육의 필요성과는 평화, 인권 인식도와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육규모와 평화, 인권 인식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가설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제주4·3 인식도와 관심도가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지는 반면, 제주4·3 피해유무와 교육여부는 평화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제주4·3 피해경험이 존재할수록, 제주4·3

인식도와 관심도가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③제주4·3의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에서의 제주4·3교육의 필요성 및 행사 참여를 통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 ⑤제주4·3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에서의 제주4·3교육의 필요성 및 행사 참여를 통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분석 결과 확인하였다.

또한 평화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학교를 통한 제주4·3교육 필요성, 행사를 통한 제주4·3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평화 인식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인식도에서는 제주4·3 피해경험이 존재할수록, 제주4·3 인식도가 높을수록, 행사를 통한 제주4·3교육 필요성이 높을수록 인권 인식도가 높아짐을 분석 결과 확인하였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4·3교육은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의 인식 형성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제주4·3교육을 통해 평화·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4·3교육과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4·3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참여의 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 행사 참여를 통한 제주4·3교육의 필요성이 평화·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인권운영 현황에도 나타나 있듯 현재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4·3과 관련 행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연구가 제기했던 문제의식과도 귀결된다.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교육과 이를 통해 스스로가 인지하는 능력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초등학생의 사회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향상 능력과 다양한 발달 과정에 적합한 제주4·3과 관련한 행사의 개발은 중요하다. 정규교육과정과 체험학습의 접목이라는 목표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행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4·3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평화·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제주4·3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교육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4·3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평화·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만이 아닌 제주4·3이 일상생활에 노출될수록 초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4·3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였지만 이제 제주4·3의 역사가 변모되었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음을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 강사의 제주4·3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정과 제주지역 곳곳에서 제주4·3을 말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주4·3은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야 할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주4·3이라는 용어를 인식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평화와 인권 인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략하게나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4·3의 맥락을 떠나 제주4·3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평화와 인권이 떠오르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제주4·3을 이야기하고 시각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생이 제주4·3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제주4·3교육에 기회가 많을수록 초등학생들이 갖는 평화,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 조사 중 약 50% 이상의 초등학생들은 1년에 평균 1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년에 약 한 달 동안 ‘제주4·3계기교육주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1년에 평균 1회 정도의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이 시기에 교육을 받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발적인 교육이 초등학생들에게 유효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1년 중 단발성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주4·3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4·3계기주간’을 상·하반기로 분산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4·3어린이 체험관 및 기념관 등을 설립하여 초등학생을 비롯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공간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학생을 위한 제주4·3교육을 운영하는 공간은 제주4·3평화재단의 4·3어린이체험관이 있다. 제주4·3평화재단 4·3어린이체험관은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

해와 상생으로 재구성하는 테마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제주 4·3어린이체험 교육 분야에 역량을 갖춘 연구 직원과 전문가 확보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도내 유일한 제주4·3어린이체험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공간을 갖춰, 제주4·3의 올바른 의미 전달과 계승을 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공헌 및 한계

현재까지 제주4·3교육이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4·3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내는 연구는 부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생 대상 제주4·3교육의 중요성과 인식 수준, 다양한 제주4·3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살펴봤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제주4·3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과 더불어 초등학생 제주4·3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설문대상 초등학교 선정에 있어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지역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설문대상 지역 분포도가 제주시 지역으로 밀집되어있다. 제주4·3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정한 바, 초등학교 선정에 있어 지역을 균형있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경험한 교육 방법에 관해 다중문항으로 설정하여 진행을 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4·3교육 방법의 내용은 알 수 있었지만, 제주4·3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의 문항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4·3교육이 초등학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종합 고찰하고 제주지역 초등학생만이 아닌 타 지역 초등학생들의 제주4·3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주4·3교육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추후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성현 (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강순문 (2001).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 학습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순원 (2000). 『평화·인권·교육』, 한울
- 고동환 (2017). 「제주4·3과 역사교과서 문제」,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4·3 집필 기준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이공이공 희망의 역사공동체: 1-6
- 고성만 (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교육부 (199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제1997-15호 별책 7
- 교육부 (2000).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 교육부
- 교육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제2022-33호 별책 1: 5
- 고상숙 외 (2013). 『구성주의와 한국수학교육』, 서울: 경문사
- 구정화 (1997). 「사회과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연구」, 한국사회과학회, 『시민교육연구』, 25: 97
- 국사편찬위원회 (1979).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 국사편찬위원회 (1990). 『고등학교 국사-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1996). 『고등학교 국사-하』, 교육부
- 김동만 (2003).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제주도 메이데이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민경 (2007).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1-12
- 김영로 (2008). 「중학교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3-6
- 김춘경 외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한중 외 (2005).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66

- 도면희 (2017).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4·3 관련 서술 분석」, 『검인정 역사 교과서 제주4·3 집필기준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이공이공 희망의 역사공동체: 51-61
- 박보영 (2006).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43-148
- 박찬식 (2001). 「한국전쟁기 제주4·3 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수형인 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1: 17-51
- 박현희 (2003). 「10학년 『사회』에서의 인권 교육 교수-학습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8-10
- 법무부 (2018).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74-245
- 송두환 (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30
- 성정숙 외 (2021).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송인섭 외 (2019). 『교육 심리학』, 서울: 휴먼북스
- 양금영 (2020).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제주도교육청 교육 자료의 제주4·3사건 서술 분석과 수업 방안 모색」,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정심 (2006). 「제주4.3항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6).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사림』, 수선사학회, 25: 275-305
- _____ (2008).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윤석찬 (2001).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국내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동욱 (2003). 「중등 사회과 인권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5-17
- 이삼열 (1991). 「냉전시대 이후의 평화운동」, 『창작과 비평』, 72: 6-57
- 이승한 외 (2011).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무부 인권국: 131-137
- 이영권 (2007). 「학교현장에서의 제주4·3교육, 그 현황과 과제-제주지역 중. 고등학교

- 현장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7: 121-123
- 임석진 외 (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 임정선 (2006). 「평화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5-1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위탁사업) 4·3평화·인권
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초등 5-6학년을 위한 4·3 이야기-4·3평화·인권교육
교사용 지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12
- 최관경 (1995).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
육연구』, 6: 198-199
- 최관경 (1996). 「평화와 평화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교육철학』, 42: 72
- 추병완 (2002). 『통일교육』, 서울: 하우
- 한윤섭 (2010). 「4·3 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국내박사
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한철호 (2011). 「고교 역사 교과서의 제주4·3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103: 9-11
- _____ (2018). 「현행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의 제주4·3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59: 41-67
- 허호준 (2003).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_____ (2022). 「4·3, 묻고 답하다」, 『전국교원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제주
4·3평화재단: 31-32
- Michael Freeman (2005). 『인권: 이론과 실천』, 김철효 옮김, 강원: 아르케
- Robin J. Burns 외 (2005).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장원석 외 옮김, 제주대학교

Abstract

Analysis of the Impact of Jeju 4·3 Education on Peace and Human Rights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i Yeon K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Jeju 4·3 is a tragic event that took place in a complex conflict structure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Korea, and it has many implications as a historical fact in Korea's modern history. However, because of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involved, including Jeju 4·3 in the curriculum is still prudent. This is because the historical fact of Jeju 4·3 itself needs attention, as well as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to establish the truth about Jeju 4·3, which continue to this da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educational content's scope and teach it in the limited classroom time.

Nevertheless, research on Jeju 4·3 history and Jeju 4·3 education continues. This is because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y of Jeju 4·3 to us today is not taken lightly.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sk what the historical facts of Jeju 4·3 mean today and to examine how much effort has been made to embrace the values of peace and human rights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Jeju 4·3 education and the impact of Jeju 4·3 education on improving individuals'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Jeju 4·3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in Jeju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Jeju 4·3 education on elementary students'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of Jeju 4·3 educ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ird and fourth graders in 12 elementary schools in Jeju Island, and 594 of the 620 questionnaires distributed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igher Jeju 4·3 awareness and interest are associated with higher peace awareness, while Jeju 4·3 victimization and education do not affect peace awareness. Second, indirect Jeju 4·3 victimization and higher awareness and interest in Jeju 4·3 are associated with higher human rights awareness. Third, the more frequent the education on Jeju 4·3, and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Jeju 4·3 education at school and the need for education through participation in events, the higher the students' awareness of peace and human righ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awareness of Jeju 4·3 can influence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and it is clear that Jeju 4·3 edu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of elementary students in Jeju Islan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re exposure to the need for Jeju 4·3 education and the number of education through training and events significantly impacted elementary students'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cooperation are made.

First, to improve pea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elementary students through Jeju 4·3 education, th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events shall be invigorated.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opportunities for elementary students to receive Jeju 4·3 educat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encounter Jeju 4·3 daily. Final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Jeju 4·3 Children's Experience Center and Memorial Hall to provide educational spaces tailored to the needs of elementary students.

Without research indicat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Jeju 4·3 education, this study will serve as a major basis for preparing a plan for Jeju 4·3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 Island. Due to the regional limitations of the study, there are limitations in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students in other regions, but this will enable to analyze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s of Jeju 4·3 education nationwide, not just in Jeju, and study program plans for the nationalization of Jeju 4·3 education.

제주4·3평화·인권교육 초등학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4·3교육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답하신 내용은 연구 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누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 덕 순 · 황 은 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전공 강 지 연

※.각 문항의 해당하는 번호 한 곳에 0표나 V표하여 주시거나, 기타()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몇 학년 인가요?
① 3학년 ② 4학년
3. 현재 살고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4.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 중에 4·3희생자 혹은 희생자 가족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5. 제주4·3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6. 제주4·3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7. 제주4·3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②을 선택한 경우 8번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① 있다. ② 없다.

7-1. 지난 3년 동안 제주4·3교육을 받은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 ① 1회~3회
- ② 4회~5회
- ③ 6회~7회
- ④ 8회~9회
- ⑤ 10회 이상

7-2. 지금까지 받았던 제주4·3교육은 무엇이었나요?(모두 표기해주세요.)

- ① 학교 수업의 제주4·3교육
- ② 제주4·3강사의 제주4·3교육
- ③ TV 및 대중매체(신문, 뉴스 등)
- ④ 유튜브 시청
- ⑤ 유적지 견학을 통한 4·3교육
- ⑥ 제주4·3행사(예술제, 공모전 등) 방문을 통한 제주4·3교육
- ⑦ 제주4·3어린이 체험관 방문을 통한 제주4·3교육
- ⑧ 기타 ()

7-3. 함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몇 명이었나요?

- ① 친구들 없이 혼자 교육받았다.
- ② 친구들 없이 가족들과 교육받았다.
- ③ 1~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 ④ 10~2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 ⑤ 30명~49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 ⑥ 50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7-4. 현재까지 받았던 제주4·3교육은 제주4·3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8. 제주4·3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8-1. 학교에서의 제주4·3교육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8-2. 체험활동을 통한 4·3교육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8-3.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한 제주4·3교육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9. 아래에 나타나 있는 평화·인권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평화 : 전쟁, 분쟁 또는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인권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평화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인권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0. 제주4·3교육이 자신의 미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영향을 미친다.
- ⑤ 매우 영향을 미친다.

11. 제주4·3 또는 평화·인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시: “잘 모르겠다” “역사” “제주” “슬픈 이야기” “동백꽃” “희생” “학살” “총” “사망” “희생” “피해” “유족” “차별금지” “평등” “약자보호” “인권” “갈등” “사과” “화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